

사랑하는 한캠USA 동역자 여러분께,

사람이 살맛 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자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쁜 일이란, 자기에겐 큰 유익이 생겼거나 또는 위로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신앙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오랜 기도가 응답될 경우이거나 또는 몹시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를 받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위로는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특히 낙심하여 어렵고 힘들 때에 단비처럼 찾아온 응답이나 위로는 (아마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보셨겠지만) 정말이지 억누르기 힘든 새 힘을 주곤 합니다.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기분이라 해야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며칠 전, 제에게도 그런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멀리 타이완에 사는 젊은 동료 팀원에게서입니다. 그녀는 지난 번 저희 캠프에 참가해서 미얀마(메야트콩) 캠프에 함께한 아가씨입니다. 기타리스트이며 영어 소통이 가능한 타이완 아가씨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작년부턴 저희와 함께 캠프에 참가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에게 보내온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는 자신의 FaceBook에 올린 아래의 미얀마 캠프 동영상이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저희 "한캠USA"의 캠프 사역이 각 나라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손이 부족하여 각 캠프의 동영상을 만들지 못하던 차에 멀리서 전해져 온 젊은 팀원 Rose Tsai의 동영상 메시지는 저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시작하는 애나하임한글교실과 올 여름 해외캠프 등 "한캠USA"의 사역준비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서는 오늘의 묵상 본문(사40:18~31)과 더불어 위로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서 40장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1~8절)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팔로 너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9~17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누구와 비교하고 견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네 마음과 너의 삶 속 detail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으로, 피곤하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는 섬세한 분이시다고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래 동영상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함께 받고 나누는 시간되시길 기원드립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77231052526601&id=1713339912249051

임철현 올림

HanGeul Camp [USA](#)

[1661 N. Raymond Ave.](#) #145

Anaheim, CA 92801

ps.: 1)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애나하임한글교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할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2)저희 "한캠USA"의 LA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가르칠 교실과 모임 공간을 위한 장소입니다.

3)올 여름 해외캠프의 일정 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 때문에 서로에게 적절한 일정이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선 확정된 올 여름 해외캠프 지역은, 하이몬(중국 상해 근처), 가오송(타이완), 마리엘(러시아 카잔 지역), 르완다/콩고(아프리카), 제주(한국), 송강하(중국), 노보삭진스키(러시아 연해주)입니다.

4)저희 '한캠'의 동역자들이 규칙적인 예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모임이 가능한 분들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7시)에 LA한인타운 근처에서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